

<h1>보도자료</h1>			<h2>양주시의회</h2>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작성일자: 2020년 10월 20일			
제목	양주시의회, 제322회 폐회... 올해 시정질문 마쳐		
소제목	양주시 미래 좌우할 GTX, 7호선 등 도로·교통분야 현안에 질문 집중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 3건을 의결한 뒤 제32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시정질문이 실시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의회는 매년 10월,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 주요 사업계획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은 시각으로 시장에게 질문하여 대의기관 및 견제기관의 존재 의의와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왔다.

올해도 본회의를 진행하는 정덕영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이성호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고, 답변은 조학수 부시장이 했다.

시의원들은 올해 시정질문에서 양주시 전체를 관통하는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 향후 계획을 자세히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양주시 미래가 달린 과급력이 큰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은 ‘경기교통공사’ 유치로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도로·교통분야에 집중됐다.

황영희 의원은 전철7호선(도봉산~옥정 광역철도건설) 연장 계획과 GTX-C 노선의 추진 계획을, 김종길 의원은 서부우회도로(호원IC~광석지구) 추진 현황 및 계획, 이희창 의원은 양주시 중장기 계획도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임재근 의원은 양주시 신성장 동력과 도시 인구 정책방안의 가늠자가 될 양주테크노

밸리 대책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향후 계획을 살펴봤고, 안순덕 의원은 지역구 양주2동의 현안인 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주문했다.

홍성표 의원과 한미령 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촉발된 양주시 환경과 나아가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촉각을 세웠다.

홍성표 의원은 SRF 열병합 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 반영 현황을 점검한 뒤 대책 마련을 당부했고, 한미령 의원은 양주시가 참여 가능한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양주시가 추진 중인 후속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따져봤다.

정덕영 의장은 “시민의 삶이 고단할수록 더욱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며 “더욱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원 모두가 합의해 결정한 사안에는 책임지는 의회가 되는 것이 양주시의회의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10월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시의회는 내달 3일부터 12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10일 동안 열고 이 기간에 양주시의 내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는다.

[관련 사진]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시정질문이 실시됐다.